

김명수 동문서답·얼렁뚱땅... “사퇴 안한다”

(사회부총리 후보)

청문회, 기고문 대필 의혹에 “글쓰기 연습시켜”

이기권 노동·김희정 여성부 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9일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됐던 논문 표절과 연구비 부당수령, 주석거래 등 각종 의혹이 쟁점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논문 표절왕’, ‘의혹 제조기’ 등의 표현으로 이 후보자를 몰아세우며 교육수장으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추궁했다.

우선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불성실하며 몰아붙였다. 새정치연합 배재정 의원은 “배우자의 금융 거래 정보를 개인정보와 관련돼 제출 못 하겠다고 하는데 교육부 장관이 되겠다고 알 바

없다는 식으로 해도 되는 거냐”고 따졌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은 “이번처럼 힘들고 무력감을 주는 청문회는 없었다”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도 임명될 수 있다는 소신이라도 있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불성실한 게 아니고 그게 다다”라고 맞섰다.

새정치연합 조정식 의원은 “10년전부터 주석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교육계 수장 되고자 하는 사람이 주석 투자가 부적절하다고 생각 안 하나”라고 따지자 김 후보자는 “적절했다 안 했다 판단 보다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누구나 주

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답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은 “2002년 정교수 승진 논문은 22페이지 중 8페이지를 그대로 베꼈다”며 “베껴다가 하는 게 통용되는 지식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내용에 일반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경우는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김 후보자는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묘한(?) 논리를 내세워 대부분 부인하면서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제2 논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학술지에 게재한 것에 대해 “(제2차) 이름을 빼먹은 것은 실수”라며 “박사 학위, 박사학위 논문은 그 자체가 미간행물이기 때문에 간행물에 실어주는 것이 (중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또 제2자를 통한 언론기고문 대필 의혹에 대해서는 “대필이 아니다. 대학원생들에게 글 쓰는 연습(을 시켜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논문을 여러 곳에 게재해 연구비를 부정수령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건비성 보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잘못된 관행이라 해서 다시 반박했다”고 말했다.

표절 의미를 묻는 질문에 “표절은 특수한 용어나 새로 만들어진 단어 등 이런 것을 인용 없이 쓰는 경우”라며 답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기권, 김희정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각각 채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뭘 좀 얘기해봐”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관련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보선 야권 연대하자”... 정의당, 새정치연합에 제안

정의당은 9일 새정치민주연합에 야권 연대를 위한 협의를 제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권의 혁신과 재보선의 승리를 위해 새정치연합에 당대당 협의를 제안한다”며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야권의 혁신과 대한민국의 대개혁, 정권 교체를 위해

서라면 누구와도 협력할 각오가 돼 있다”며 “야권의 협력 중요성은 여러 차례 얘기했다. 공천 막바지이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의 면면을 보면 ‘어게인 MB’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은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국가 대개혁의 과제를 책임진다는 확고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줘

야 한다”며 “폭넓은 연대와 협력으로 대개혁의 역량을 모아내고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 방법이 있어서는 “방법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겠다”며 “다만 야권의 혁신과 선거 승리가 중심 의제이며, 후보 조정만을 위한 협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공천 과정에서 계파정치와

패권정치로 일관하며 국민에 실망만 안기고 있다. 이 탓에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안긴다면 새정치연합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 동작을 출마를 선언한 노회찬 전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세종입니다’에 출연 “기동민 전 부시장의 경우 (박원순 시장의) 후광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다면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며 “정치도 실명제로 가야 한다. 박 시장이 심판을 받으려면 박 시장이 직접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새정치 광주 광산을 보선 후보 권은희는 변호사 출신... 여성 첫 경정특채 합격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외압 폭로 주목

9일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된 권은희 전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은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다.

광주 출신으로 전남대 법대를 졸업한 권 전 과장은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5년 대한민국 여성 최초로 경정특채 채용에 합격해 변호사 출신 여성경찰관이 됐다.

이어 경기 용인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거쳐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서울지역 일선 경찰서 최초의 여성 수사과장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된다.

권 전 과장은 지난 2012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당시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수사를 담당하면서 원석의 부당한 수사개입 의혹을 폭로하면서 정치권과 전 국민의 주목을 받아왔다.

김용관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외압과 경찰의 무리한 중간수사결과 발표 등과 관련해 사건 담당 수사과장으로 소신

있는 발언을 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권 전 과장은 애초 발언을 재확인하면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하지만, 권 전 과장은 지난 1월9일 경찰청 총경 승진 인사에서 누락됐고, 지난 6월 30일 경찰을 사직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정치권에서 ‘러브콜’을 받아왔던 권 전 과장은 이번 7·30 재보궐선거를 통해 등장이 점쳐졌다. 그러나 권 전 과장은 대학원 등을 이유로 재안을 거절해왔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의 끈질긴 설득으로 인해 이날 결국 광주 광산을 전략공천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은 권 전 과장이 광주가 아닌 수도권에서 이슈 메이커를 해주는 게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안철수 “공천, 하느님인들 비판 안받겠나”

재보선 관련 ‘금태섭 공천카드’ 당내 반대에 작심 발언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9일 7·30 재보선 공천과 관련, “어제 금태섭 전 대변인이 우리의 가용한 인재 풀 중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졌음에도 흔쾌히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을 보며 국민이 이것을 납득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다”며 공천 과정의 당내 비판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떠한 사적인 고려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의 이런 발언은 전날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이 수원정(영동) 보궐선거 후보로 측근인 금 전 대변인을 공천하려고 하자 일부 최고위원들이 반대한 데 대한 것으로 풀이됐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저와 인연 있는

사람이 최악의 후보일 때는 ‘자기 사람 챙기기’라고 하고, 인연 있는 사람이 선정 안 되면 자기 사람도 못 챙긴다고 한다”며 “그런 잣대로 비판하면 하느님인들 비판받지 않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금 전 대변인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원 영동 공천을 거부했다.

하지만,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TV ‘맹찬형의 시사터치’에 출연, “갑자기 천장배 전 장관은 아웃시키고, 광주 광산에 신성한 기동민 후보는 동작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공천파동을 우리 새정치연합으로 가져오게 한 책임은 우리 새정치연합 두 대표에게 있다”며 김한길, 안철수 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 남북교류협력발전특위 위원장 원혜영 선출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회는 9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위는 또 여야 간사로 새누리당 유재중, 새정치연합 노웅래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원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남북관계발

전특위가 정파를 떠나 대북·통일 정책에 있어서 국회 차원의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정례적으로 공청회, 간담회 개최는 물론 개성공단, 금강산 등 남북관계 주요 현장을 방문하는 등 특위활동의 좋은 선례를 남기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금리는 낮게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품암지점

NAVER *검색엔진* 단비플라워 *을 처음보요*

단비플라워

죽아화완3단 근조화완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집

신속하고 간단한 뽀칠시공으로 **뿌려만주면 3~4°C** 실제 내부 온도가 차이가 난다면?

이시골드코트는 복사열로 인한 건축물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뽀칠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복사열을 방지합니다. 이제 후끈후끈한 열대야에서 해방되십시오.

시공전 시공후 시공전 시공후 시공전 시공후 시공후 시공후 시공후 시공후 시공후

주택 외벽 계랑기와 지붕 사로탱크 돈사 지붕

적용범위: 신축 건물 및 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외벽, 옥상, 지붕 등 슬라브 구조 주택 옥상 / 슬레이트 지붕 / 아스팔트 성글 / 주택의 외벽 / 샌드위치 판넬 벽체 및 지붕 기와지붕 / 계랑기와 지붕 / 아치판넬 구조 지붕 / 죽사(우사, 돈사, 계사 등) 지붕 / 사로탱크 등

EG GOLD COAT 이시골드코트

대리점문의 본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10-7514-3266 / T. 041-634-9909

(주)홍성이엔지 www.hsegreen.com

호남영업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680 / 광주북구 T. 010-9431-3445 /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